

# 투자신탁 이용 고객의 저축 상품에 관한 지식과 영향변수

## The Knowledge about Savings of Customers Who Utilize Investment Trust Company and Related Factors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 수 이 연 숙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강 연 아

Dept. of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Prof. : Lee, Yon Su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Kang, Yeon Ah

### 〈 목 차 〉

I. 서 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nowledge about savings of customers who utilize Investment Trust Company an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it. The data for the analysis were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consisted of 191 customers who utilize Investment Trust Company.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percentage, frequency, means, and standard derivation, t-test, one-way ANOVA with Schéffé 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major findings.

1) The customers knowledge about savings showed generally low-level. Especially the knowledge about tax and regulation of savings were the areas shown the lowest level.

2) The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and occupation of customers and total period of utilizing company were the factors affecting the knowledge of customers in the one-way ANOVA analysis.

3)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age of customers and total periods of utilizing company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customers' knowledge. These two variables explained 25.77% of variance of customers' knowledge about savings.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이룩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가계 저축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저축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경제주체에 따라 가계저축, 기업 저축 및 정부 저축으로 구분된다. 가계저축은 가계가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소득의 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지출에 대한 시간선택을 표현하는 합리적인 행동으로서, 가계는 현재의 소비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와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장래의 재정적인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욕구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며 미래의 재무적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저축을 하게 된다 (Colien, 1982).

우리나라는 I.M.F 관리체제 맞이하여 급속한 금융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을 깨고 은행도 부도 날 수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실 I.M.F 이전 우리나라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보호와 규제를 심하게 받으며 사실상의 담합상태에 있어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상품을 개발해 내지 못하고 비슷비슷한 상품들을 저축시장에 내놓고 있었으며 부도채권 등으로 부실해진 은행도 정부의 보호하에서 운영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저축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도 못하고 내용과 이용방법도 정확히 숙지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소비자는 저축시장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예측하며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저축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 분야에서는 경제성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연구, 가정학 분야에서는 도시가계의 저축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를 맞이하여 금융환경은 급변하게 되었고 예전과 달리 저축상품도 다양하게 판매 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실에서 소비자들은 스스로 재무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효율적으로 재무관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축상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들은 저축상품의 종류, 세제상의 우대 및 가입조건 등에 대한 정보가 아주 부족하며,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홍보자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은경제연구소, 1993). 이와 같은 현실상황에서 소비자의 저축상품에 대한 분야별 지식을 조사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2 금융기관중의 하나인 투자신탁 이용 소비자를 중심으로 저축상품과 저축관련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며 이러한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저축행동을 유도 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금융기관들은 소비자들의 요구와 실태를 파악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맞는 저축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투자신탁 이용소비자의 저축상품에 대한 지식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2) 투자신탁 이용소비자의 저축상품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 3) 투자신탁 이용소비자의 저축상품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의 독립적 영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가계저축의 개념

저축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생산을 위한 재정자원의 측면으로, 저축은 자

본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원천을 의미하며, 현재의 소비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으나 그 대신 장래에 더 많은 양의 생산을 위해서 유보된 새로운 재료와 노동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소비를 위한 재정 자원의 측면으로, 저축은 미래의 소비를 위하여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저축의 크기는 실질적인 순소득과 소비의 차액이다. 어떤 측면에서의 정의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저축이란 일정 기간동안 실질경제활동결과로 얻어진 소득 또는 생산액 중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만큼 소비하고 남은 부분으로, 혹은 장래의 사용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현재의 소비를 유보한 부분으로 실물, 금융 및 인적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김기욱외 4인, 1996). 이러한 정의의 저축의 개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축의 개념은 가계가 자금을 비축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예금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축상품이란 각종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 2. 저축상품에 대한 지식의 개념 및 측정방법

소비자지식은 소비자능력을 구성하는 인지적 영역으로서 경제사회에서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과 개념이다(이기춘, 1985). 저축상품에 대한 지식이란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저축상품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약관에 있는 사실과 개념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 즉, 저축상품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의 정도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특징된다. 우선 많은 선행연구에서(이기춘, 1985; 이해임, 1986; Danes & Hira, 1990; 배순영외2인,1996)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식관련 문항을 제시하여 각 문항의 진위 여부를 묻는 진위형 혹은 여러 답지를 주고 옳은 것을 고르게 하는 선다형의 형태를 취하는 객관식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관련지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혹은 '잘 모르겠다' 등으로 표시하게 하는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 인식을 근거로 특징하는 방식이다(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1987; 한국소비자보호원,1992).

본 연구에서는 저축에 대한 지식을 선태형, 선다형, 진위형을 활용하여 객관식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 3. 저축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저축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정도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저축행동이나 저축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비자의 저축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도 포함시켜서 관련 변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소득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투자에 대한 양정선(1992)의 연구를 보면 1인 당 월평균 가계소득과 상대소득 수준인지가 저축 및 투자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희(1986)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득은 저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저축률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백설희(1983)의 도시가계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도 도시가계의 저축 결정 요인으로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당 소득수준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저축률도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은 전반적인 저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축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임(1986)은 저축상품에 대한 주부들의 인지도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는 제도 금융이용률 및 저축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보험 소비자의 약관에 대한 지식과 관련요인 연구(배순영, 민현선, 여정성, 1996)에서는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 보험약관에 대한 지식도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해임의 연구와는 다른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저축상품과 보험이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 (2) 연령 및 가정생활주기

백설희(1983)의 도시가계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저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이하와 36-40세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으며 그 후에는 대체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가 50세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광석(1975)의 연구에서도 20대보다는 30대일 때 한계저축률이 높지만 저축률이 높아질 40대와 50대에서는 오히려 30대 보다 낮은 한계저축율이 나타난다고 보고 했다. Hanna(1989)의 연구에 의하면 순자산에 대한 연령과 소득의 강한 관계가 생애주기 가설과 일치한다고 언급하면서 64세 이후의 순자산의 감소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박순희(1985)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결혼년수가 증가 할수록 저축률은 감소 한다고 했다. Chang(1994)의 연구에서 연령은 저축과 정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자산과 관련하여서 보면 나이가 어리고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보다 적게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irer(1979), Menchik과 David(1983), Kurtz(1984)등의 횡단분석 자료에서 발견되는 연령과 자산과의 관계는 생애주기 가설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노년기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을 감축 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산을 축적 시키는 것 때문에 보여진다(양정선, 1992 재인용). 류정순(1991)의 저축상품 속성별 중요도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속성별 중요도 인식 전반에 관한 독립적인 영향력은 인생주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소비자 교육과 저축상품 시장 세분화는 인생주기 단위로 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흥선(1988)의 연구인 도시가계에서 인지된 저축의식은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더 높은 인지수준을 나타낸다고 했다. 반면 이혜임(1986)의 연구를 보면 결혼생활주기 단계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낮았는데 이는 결혼생활주기의 단계가 높아지면 계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많고 또 저축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3) 교육수준

백설희(1983)의 도시가계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저축행동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선(1984)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교육수준과 저축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민표(1985)도 세대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저축에 대해 적극적이고 소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였다. 송영주(1981)는 서울시 주부의 저축에 대한 태도와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주부의 저축에 대한 태도는 주부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저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주부의 저축행동은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적이었다.

반면 박순희(1985)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저축률은 증가 한다고 나타났다. 저축행동을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할 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저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또한 배순영, 민현선, 여정성(1996)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보험약관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흥선(1988)의 도시가계에서 인지된 저축의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부와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인지수준을 나타내었다. 이혜임(1986)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저축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었다.

### (4) 직업

김광석(1975)의 한국가계의 저축 형태 분석에 의하면 근로자 가계의 한계저축성향이 기업가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숙(1993)의 도시가계의 저축행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구주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저축액이 낮고 서울과 직할시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적게 저축한다고 했다. 이흥선(1988)의 도시가계에서 인지된 저축의식은 직업을 갖지 않는 주부일수록 저축의식에 대해 더 높은 인지수준을 나타내었다. 또, 직업을 갖지 않는 주부일수록 정부의 저축시책 반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이혜임(1986)의 연구에서는 봉급생활자, 전문직종사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근로자

순으로 일용근로자가 저축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고 하였다. 반면 백설희(1983)의 도시가계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와 배운영, 민현선, 여정성(1996)의 보험약관에 대한 지식에서의 연구를 보면 직업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홍향숙, 이기춘(1997)의 연구에서 비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저축에 대한 소비자 교육 요구순위가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 (5) 주택소유여부

이홍선의(1988) 도시가계에서 인지된 저축의식은 무주택 가계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Hefferan(1982)에 의하며 주택소유여부는 저축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문숙재(1985)도 무주택자일수록 저축율이나 저축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홍선, 1988 재인용). 김순미(1987)의 도시가계의 금융자산선택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금융자산선택행동의 만족도는 주택을 소유한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양정선(1991)의 연구에서는 무주택자의 경우에 주택이 있는 사람 보다 저축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희(1985)의 연구에서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계가 소유한 가계보다 저축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했다. 김인숙(1993)은 도시가계의 저축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주거형태별로는 자기집을 가진 가구나 전세를 사는 가구가 저축을 많이 한다고 했다.

#### (6) 자산

Colien(1982)은 가계저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저축과 저축수준, 저축유형은 자산, 소득, 가정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저축의 결정에는 소득이 중요한 설명변수라고 하였다. Ferber(1982)는 저축의 결정에는 이용 가능한 재정적 자원, 가정의 목적, 가족구성원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가족 구성과 개인적인 경제조건들과 변수들의 조건도 역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Lee와 Hanna(1995)의 연구에서는 인적 자산이 포함된 총자산은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투자 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H투자신탁 이용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 배포에 있어서는 지역을 고려하여 서울시 전역을 구별로 분류하여 군자지점, 잠실지점, 영등포지점, 수유동지점, 신촌지점, 명일동지점, 가락지점, 테크노마트지점, 천호동지점, 종로5가지점, 서울 인근 지역인 수원지점과 평촌지점에 총 410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250부가 회수되어 60%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에서 무응답등 불성실한 것 59부를 제외하고 총 191부를 연구의 분석 자료로서 사용하였다. 배포방법은 직접방문과 H투자신탁 사내행랑과 우편을 이용하였다. 간접으로 자료수집을 한 경우, 각 지점 협조자에게 질문지응답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용 소비자에게 배포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시기는 1998년 12월 21일부터 26일 까지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질문지를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1999년 1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 실시 하였다.

####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이다. 질문지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투자신탁거래기간, 저축종류결정에 관한 부부의 의사결정유형을 묻는 문항과 저축상품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신탁 거래기간은 거래기간을 몇 년 몇 개월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저축종류에 대한 부부의 의사결정 유형은 항상납편, 대부분납편, 부부공동, 대부분주부, 항상주부, 본인(미혼) 에 응답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저축상품에 대한 지식은 상품특성, 세금, 약관, 주식, 부가서비스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선택형, 선다형, 진위형 형식의 문제를 출제 하였다. 검사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분석 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같은 기술통계, t검증, 일원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 방법이다.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lt;표 1&gt;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1			
종 류	구 분	N	%
성 별	남 자	78	40.8
	여 자	113	59.2
연 령	20~29	73	38.2
	30~39	61	31.9
	40~49	27	14.1
	50~59	25	13.1
	60대이상	5	2.6
주거소유형태	자 가	120	62.8
	전 세	63	33.0
	월 세	0	0
	기 타	8	4.2
결혼 여부	미 혼	65	34.0
	기 혼	126	66.0
학 령	국 졸	5	2.6
	중 졸	10	5.2
	고 졸	56	29.3
	대 졸	120	62.8
저축유형 의사결정	항상남편	22	11.5
	대부분남편	32	16.8
	부부공동	45	23.6
	대부분주부	23	12.0
	항상주부	5	2.6
	미 혼(본인)	64	33.5
응답자직업 ( )안은 배우자직업	전문직	4 (3)	2.1(1.6)
	관리직	9(12)	4.7(6.3)
	전문기술직	7(9)	3.7(4.7)
	사무직	92(41)	48.2(21.5)
	생산직	1(2)	0.5(1.0)
	자영업자	12(7)	6.3(3.7)
	무 직	5(3)	2.6(1.6)
	주 부	44(46)	23.0(24.1)
	기 타	17(3)	8.9(1.6)
월평균총수입액	100만원 이하	26	13.6
	101~200만원	70	36.6
	201~300만원	60	31.4
	301~400만원	16	8.4
	401~500만원	8	4.2
	500만원 이상	11	5.8

2) 금융기관 이용 현황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투자신탁 외에 은행, 신용금고, 증권회사를 선정하고, 이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가 <표 2>에 제시된다.

<표 2> 금융기관별 이용 실태 분포

금융기관	이용여부	빈도	백분율
은행	이용하지않음	71	37.2
	이용함	120	62.8
신용금고	이용하지않음	185	96.9
	이용함	6	3.1
증권회사	이용하지않음	177	92.7
	이용함	14	7.3

2.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의 일반적 경향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저축상품에 관한 전체지식은 평균 29.18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6.43이다. 최소 10점부터 만점인 40점 까지 분포되어 있다. 40점이 만점으로 볼 때 중간점수인 20점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설문지 문항이 특수하고 구체적인 것을 묻지 않고 전반적인 것을 질문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지식수준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3>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의 일반적 경향

지식유형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상품특성지식	8.26	2.91	2	12
세금관련지식	8.23	1.89	3	10
약관관련 지식	5.30	1.62	0	8
주식관련 지식	5.60	1.29	0	7
부가 서비스	1.78	1.15	0	3
전체지식	29.18	6.43	10	40

다음으로 저축상품에 관한 전체지식을 구성하는 5 가지 하위영역 지식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세금관련 지식은 평균이 8.23, 표준편차가 1.89로 나타났다. 이 값은 만점이 10점임을 감안 할 때 상품특성에 관한 지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세금관련 지식이 상품특성에 관한 지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투자신탁 이용고객이 자신이 선택한 저축상품에 어느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는가에 관해 관심을 둔 결과라고 보여 진다.

약관관련 지식을 보면 평균이 5.30, 표준편차가 1.62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서 만점이 8점임을 감안 하면 약관관련 지식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0점인 사람도 있어 약관은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소비자에게 친숙한 용어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주식관련 지식을 보면 평균이 5.60, 표준편차가 1.29로 나타났다. 이 경우의 만점이 7점임을 고려하면 주식에 관한 지식은 앞의 약관관련지식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주식에 관한 지식이 0점인 사람도 있고 표준편차가 작지 않아 이해의 정도가 균일하지 않음을 나타내나, 앞의 세 경우에 비해 이해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I.M.F이후의 경기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I.M.F직후 주가가 300선 까지 떨어 졌으나 최근에는 주가가 반등 되어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투자신탁 회사들이 주식형 수익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계속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임으로 주식형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이 상당한 정도의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최근의 경향이 주식관련 지식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부가서비스에 관한 지식을 보면 평균이 1.78, 표준편차가 1.15로 나타났다. 부가서비스 하위영역의 경우 만점이 3점임을 감안하면 평균1.78은 높은 정도의 지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표준편차가 1.15로 크고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의 범위가 3점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해정도는 균일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달리말해, 부가서비스에 관한

지식은 다른 앞서의 4하위영역에서와 같이 이해의 정도에서 수준차이가 매우 심함을 나타낸다. 어떤 응답자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어떤 응답자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이다. 부가서비스에 관한 지식이 높지 않은 것은 부가서비스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부가서비스를 사용하고는 싶지만 복잡한 사용방법이나 가입처리절차등을 몰라서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투자신탁 저축상품에 관한 전체지식을 상위33%, 중간33%, 하위33%의 3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의 이해 정도를 분석해 보았다.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하위집단의 표준편차는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크다. 이는 상, 중 두집단의 저축상품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이지만 하위집단의 이해의 정도는 매우 이질적인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의 이해의 정

도가 균일하지 못한 현상은 하위집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이 중간집단과 하위집단이 상위집단에 비하여 특히 더 낮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두집단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상담원만을 믿고 거래하는 유형의 사람들로 선의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금융지식을 어디서 얻게 되는가에 관한 질문에 절대다수가 상담원의 안내를 통해서 라는 응답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교육은 이 두집단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1)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 및 기타변수가 저축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 의사결정유형, 거래기간에 따라 소비자의 저축상품에 대한 전체지식과 하위영역별 지식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One-way ANOVA 분석의 사후검정은 Schéffé 검증을 적용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에 의하면 저축상품에 대한 전체 지식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에서는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이었고, 기타 관련변수에서는 거래기간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 따라 저축상품에 대한 전체 지식수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집단은 20대이고 낮은 점수를 나타낸 집단은 60대 이상이었다. Sché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대는 30-40대와 50-60대 이상의 두집단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가서비스만 제외하고 상품 특성, 세금, 약관, 주식에서 모두 연령별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누구나가 쉽게 접하고 이용하는 부가서비스만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상품특성, 세금, 약관, 주식에서는 연령별로 이해 정도

<표 4> 상,중,하 3집단의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 이해의 정도 기술통계량

집 단	지식유형	평 균	표준편차
상위집단(N = 65)	상품특성	10.74	1.20
	세 금	9.75	0.56
	약 관	6.65	1.10
	주 식	6.37	0.76
	부가서비스	2.54	0.79
	전체지식	36.05	1.96
중간집단(N = 61)	상품특성	8.85	1.65
	세 금	8.43	1.51
	약 관	5.15	1.30
	주 식	5.61	1.10
	부가서비스	1.69	1.07
	전체지식	29.72	1.83
하위집단(N = 65)	상품특성	5.23	2.28
	세 금	6.52	1.69
	약 관	4.11	1.31
	주 식	4.83	1.42
	부가서비스	1.11	1.08
	전체지식	21.80	3.52



가 확실히 다름을 보여준다.

결혼여부에 따라 저축상품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보면 미혼집단이 기혼집단보다 저축상품에 대한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하위영역지식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혼인 경우 연령이 기혼집단에 비해 낮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상품특성, 세금, 약관, 주식, 부가서비스의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 5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저축상품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전체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국졸집단과 고졸집단과 대졸이상 집단의 저축상품에 대한 지식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국졸집단 보다는 중졸집단이, 중졸집단보다는 고졸 및 대졸이상 집단이 저축상품에 관해 더 많이 인지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교육의 측면에서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을 교육하거나 홍보한다면 비교적 학력이 낮은 집단에 초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의 5개 하위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상품특성, 세금, 약관, 주식, 부가서비스에서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의 정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 저축상품에 관한 전체지식은 응답자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의 평균이 31.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직의 평균이 29.22, 무직의 평균이 28.60, 전문직의 평균이 27.50, 주부의 평균이 27.02, 자영업자의 평균이 27.00, 전문기술직의 평균이 22.14, 그리고 생산직의 평균이 21.00으로 나타났다. Schéffé 검증결과 사무직의 평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직업에 따른 5개 하위영역 지식의 살펴 본 결과, 상품특성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직업

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투자신탁을 이용한 거래기간에 따라 저축상품에 관한 전체지식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래 기간이 6-10년 집단의 평균이 31.65로 가장 높고, 1년미만 집단의 평균이 28.04, 1-5년 집단의 평균이 28.44, 그리고 11년 이상 집단의 평균이 27.70으로 나타났다. Schéffé 검증결과 6-10년 집단이 다른 3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6-10년 집단은 다른 3집단보다 금융상품에 관한 전체지식이 의미 있게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전체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은 거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지는 않는다. 10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가 되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교육은 거래를 시작한지 5년 이내의 사람과 10년 이상의 오래된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거래기간에 따라 하위영역의 지식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 본 결과 상품특성에서만 거래기간별로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이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 하위영역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회귀분석을 통한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것은 저축상품 전체지식 이었다. 독립변수로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수는 차이검증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서 의미가 있는 차이를 보인 변수와 선행연구에서 의미 있게 나타났던 변수였다. 이러한 변수들은 거래기간,<sup>1)</sup>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응답자의 직업이었다. 이 중에서 결혼여부, 응답자의 직업, 그리고 성별은 가 변수 처리를 하였다.<sup>2)</sup>

- 1) 거래기간과 전체지식 간의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선형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추세분석을 한 결과 곡선관계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 공선성이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Tolerance 값을 살펴본 결과 .01보다 크게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5〉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 및 기타변수에 따른 저축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변수	지 식	상품특성			세 금			약 관			주 식			부가서비스			전체지식			
		M	SD	i/F 값	M	SD	i/F 값	M	SD	i/F 값	M	SD	i/F 값	M	SD	i/F 값	M	SD	i/F 값	
성별	남(78)	8.07	2.85	0.73	8.15	1.93	0.46	5.28	1.60	0.15	5.78	1.18	1.79	1.18	29.08	6.11	29.08	6.11	0.16	
	여(113)	8.38	2.95		8.28	1.87		5.31	1.64		5.47	1.35	1.76	1.12	29.23	6.67	##			
연령	20대(73)	8.84	2.76		9.01	1.51		5.93	1.39		6.02	0.95	2.01	1.07	31.83	5.76				a
	30대(61)	8.06	3.01		7.78	2.05		5.29	1.78		5.62	1.22	1.72	1.09	28.49	6.36				b
	40대(27)	8.81	2.89	3.53*	8.25	1.43	6.97*	4.74	1.40	7.26*	5.22	1.55	1.77	1.21	28.81	6.08	2.31			b
	50대(25)	6.96	2.71		7.16	2.13		4.28	1.40		4.92	1.55	1.44	1.26	24.76	5.89				c
	60대(5)	5.60	0.89		7.40	1.81		4.40	0.89		4.60	1.14	0.80	1.30	22.80	0.83				c
주거 소유 형태	자거(120)	8.50	2.71		8.26	1.83		5.18	1.65		5.60	1.28	1.79	1.19	29.35	6.11				
	전세(63)	7.96	3.28	1.37	8.23	1.98	0.01	5.60	1.54	2.78	5.60	1.28	1.82	1.05	29.38	6.87	0.03			0.01
	월세(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결혼 여부	미혼(65)	8.92	2.47	2.18*	8.83	1.59	3.22*	5.72	1.51	2.60*	6.06	0.93	2.03	1.06	31.56	5.55	2.19*			a
	기혼(126)	7.92	3.06		7.92	1.96		5.08	1.64		5.36	1.38	1.65	1.17	27.94	6.52				b
학력	국졸(5)	5.20	2.28		6.40	2.07		4.20	1.30		4.80	2.28	1.60	1.34	22.20	7.12				
	중졸(10)	8.80	3.01		7.60	1.89		4.10	1.44		4.10	1.28	1.40	1.26	26.00	6.37				b
	고졸(56)	8.42	2.76	2.05	8.44	1.61	2.21	5.07	1.55	4.17*	5.48	1.36	1.66	1.26	29.08	6.04	0.87			a
	대졸(120)	8.26	2.94		8.25	1.97		5.55	1.61		5.81	1.10	1.87	1.07	29.77	6.41				a
응답자 직업	전문직(4)	8.50	1.91		7.25	2.98		5.25	2.06		5.00	0.81	1.50	1.29	27.50	3.31				b
	관리직(9)	7.77	2.90		8.66	2.00		5.55	1.23		5.22	1.39	2.00	1.32	29.22	7.27				a
	전문기술직(7)	5.71	2.13		6.42	2.57		4.14	0.89		5.14	0.89	0.71	0.95	22.14	4.74				c
	사무직(92)	8.71	2.88	1.48	8.69	1.62	2.96*	5.71	1.65	2.43*	5.97	1.14	2.09	1.03	31.20	5.94	3.16*			a
	생산직(1)	4.00	0.00		7.00	0.00		5.00	0.00		5.00	0.00	0.00	0.00	21.00	0.00				c
자영업자(12) 무직(5) 주부(44)	자영업자(12)	8.50	2.96		7.33	2.14		4.66	0.98		4.75	1.35	1.75	1.21	27.00	4.91				b
	무직(5)	8.40	1.67		8.00	2.00		5.00	1.00		6.00	1.00	1.20	1.09	28.60	5.31				a
	주부(44)	8.04	3.12		7.70	1.97		4.77	1.73		5.02	1.48	1.47	1.15	27.02	7.21				b

〈표 5〉 계속

변수	지식	상품특성			세금			약관			주식			부가서비스			전체지식																				
		M	SD	U/F 값	Scheffe	M	SD	U/F 값	Scheffe	M	SD	U/F 값	Scheffe	M	SD	U/F 값	Scheffe	M	SD	U/F 값	Scheffe																
월	집단(N)	7.84	3.48			7.88	2.30			4.80	1.62			5.46	1.36			1.50	1.30			27.50	8.41														
평	백만이하(26)	8.51	2.75			8.30	1.73			5.38	1.82			5.48	1.49			1.70	1.12			29.38	6.27			1.95	1.12			29.25	6.26			0.79			
간	101~200만(70)	8.03	3.11	0.43		8.20	2.00	0.83		5.41	1.39	0.95		5.65	1.13			1.95	1.12	0.99		29.25	6.26			2.12	1.02			30.68	4.61						
총	201~300만(60)	8.75	2.29			8.43	1.45			5.50	1.63			5.87	0.71			2.12	1.02			30.68	4.61			1.62	1.30			27.25	6.47						
수	301~400만(16)	7.75	2.71			7.50	2.50			4.62	1.59			5.75	1.38			1.62	1.30			27.25	6.47			1.63	1.12			30.63	5.27						
입	401~500만(8)	8.54	2.38			9.00	1.18			5.54	1.43			5.90	1.22			1.63	1.12			30.63	5.27														
	500만이상(11)																																				
자산	1억5천만이하(32)	8.12	3.00			8.31	1.71			5.40	1.75			6.03	1.12			1.90	0.96			29.78	6.06														
총액	1억5천만~3억(22)	8.27	3.04	0.01		8.00	2.13	0.23		5.31	1.72	0.32		5.22	1.60	2.63		2.09	1.10	2.37		28.90	7.73	0.28													
	3억이상(65)	8.15	2.76			8.29	1.85			5.12	1.69			5.64	1.21			1.55	1.17			28.76	5.90														
부채	5천만이하(47)	7.87	2.58			8.27	1.75			5.25	1.45			5.59	1.17			1.70	1.14			28.70	5.54														
총액	5천만이상(7)	9.71	2.13	3.21		7.85	2.79	0.29		5.71	1.79	0.57		5.85	1.06	0.30		2.42	0.53	2.71		31.57	6.18	1.58													
	1억이상(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저축	항상납편(22)	7.45	3.27			7.90	2.04			4.59	1.94			4.81	1.86			1.81	1.13			26.59	6.91														
의사	대부분납편(32)	8.31	2.96			8.43	1.50			5.12	1.53			5.37	1.49			1.59	1.31			28.84	5.83														
결정	부부공(45)	8.22	3.02	0.60		8.11	1.89	1.94		5.31	1.66	0.75		5.64	1.17	1.36		1.64	1.15	0.18		28.93	6.43	1.02													
	대부분주부(23)	7.39	3.15			7.04	2.40			5.08	1.41			5.39	1.03			1.65	1.11			26.56	7.05														
	항상주부(5)	7.20	2.68			7.40	1.94			4.80	1.64			5.20	0.83			1.40	1.14			26.00	6.78														
거래	1년미만(23)	7.21	3.45			8.08	2.29			5.26	1.48			5.56	1.07			1.91	1.12			28.04	7.44														
기간	1년~5년(109)	7.98	2.93	6.54*		8.01	1.84	1.87		5.15	1.67	1.06		5.60	1.31	0.23		1.67	1.11	0.75		28.44	6.38	3.43*													
	6년~10년(49)	9.67	2.09			8.77	1.74			5.65	1.62			5.67	1.37			1.87	1.26			31.65	5.75														
	10년이상(10)	6.80	2.34			8.20	1.87			5.30	1.25			5.30	1.05			2.10	0.99			27.70	5.12														

\* P<.05

〈표 6〉 전체 저축상품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

구 분	회귀계수 (b)	표준회귀계수 ( $\beta$ )	t-값
응답자직업	-.2090	-.0721	-.973
거래기간	.0477	.3628	4.99*
결혼여부	-1.5383	-.1136	-1.42
학 력	-.0897	-.0100	-.130
성 별	.7926	.0607	788
연 령	-2.7365	-.4812	-5.258*
상 수	35.1213		9.465*
R <sup>2</sup> = .2577		adjusted R <sup>2</sup> = .2335	

\*p &lt; .05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축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거래기간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의 연령이 적고 투자신탁기관과의 거래기간이 길수록 저축상품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변수는 전체 저축상품지식의 총변량을 25.77% 설명하고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교육적 측면에서 소비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과 금융기관에서 재무상담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저축상품에 대한 지식과 관련변수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H투자신탁 이용소비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하위지식영역은 세금 관련지식과 저축상품약관에 관한 지식 부분이었다. 따라서 투자신탁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저축상품 전반에 걸친 교육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저축과 관련된 세금관련 지식과, 저축상품 약관에 대한 지식이 저조함을 감안할 때 이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선정과 이를 효율적으로 전

달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덧붙여 저축상품에 관한 지식 정도에서 중간집단과 하위집단이 특히 더 낮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소비자 교육은 이 두 집단에 집중적으로 실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체 저축상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결혼여부, 학력, 거래기간, 직업등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적을수록, 미혼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거래기간이 길수록, 직업이 사무직일 경우 소비자의 저축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저축상품에 대한 소비자교육은 연령이 50대이상이며, 교육수준이 낮고, 5년 이내 거래한 소비자와 11년 이상 거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축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타직종에 비해서 낮은 전문기술직, 생산직 종사자도 저축상품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저축상품에 관한 하위영역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축상품특성에 관한 지식은 연령, 결혼여부, 거래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세금에 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결혼여부, 직업으로 나타났고 약관에 관한 지식은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주식관련 지식은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부가서비스에 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여부, 직업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체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하위영역지식에도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저축상품에 대한 전체지식에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비자의 연령과 투자신탁 거래기간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은 소비자의 저축상품에 관한 전체지식의 변량을 25.7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상의 결론에 근거하여 소비자교육이나 금융기관에서의 소비자들의 욕구와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투자신탁 이용자들의 저축상품 지식도 중에서 가장 낮았던 부분이 상품약관과 세금에 관한 지

식이었다. 이 부분을 보충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국가적 교육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금융기관에서는 소비자들이 좀더 알기 쉽도록 상품약관을 재 구성해야 하고 국가에서는 세금에 대한 자세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좀더 친숙하게 소비자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만화등을 통해서 사례중심으로 책자를 만들어도 좋을 것이며 텔레비전을 활용한다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시트콤 형식을 빌어서 세금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세금우대형식을 취하고 있는 저축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의 명칭을 통일해서 소비자가 다른 상품으로 오인해서 중복가입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을 줄여야 하겠다.

둘째, 가계재무설계사의 능력배양이다. 이는 투자신탁 이용고객 대분이 상품선택시에 전적으로 상담직원의 말에 의해서 상품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속에서는 각 금융기관에서 재무설계사들의 능력을 배양 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상품 판매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 줄 수 있는 지식과 인성이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구청등에서 여성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재무관리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는 신문사와 금융회사가 연결해서 산발적으로 제테크강좌가 열리고 있으나 이는 각 회사의 이득과 연결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공공단체에서 좀더 공적인 소비자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넷째, 금융기관에서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홍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아도 소비자들이 몰라서 사용을 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의 저축상품에 대한 지식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의 지식을 묻는 문항 숫자를 늘리고 문항형식을 다양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응답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고 이러한 낮은 회수율이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되고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응답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투자신탁외에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지식수준을 측정해 보는 것도 심도 있는 소비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김광석(1975). 한국가계의 저축행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총서, 제4집.
- 2) 김순미(1987). 도시가계의 금융자산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 중산층 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김인숙(1993). 도시가계의 저축행태에 관한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4) 국은경제 연구소(1993). 한국인의 소비생활, 서울.
- 5) 류정순(1991). 생활양식에 따른 저축상품 속성별 중요도 인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박순희(1986).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박연태(1992). 가정경제학, 학문사.
- 8) 배순영·민현선·여정성(1996). 보험소비자의 약관에 대한 지식과 관련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4(1), 281~294.
- 9) 백설희(1984). 도시가계의 저축행동에 관한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0) 송영주(1981). 서울시주부의 저축에 대한 태도와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양정선(1992). 체계론에 기초한 도시가계의 저축 및 투자행동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12) 이기춘(1985). 소비자능력개발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이민표(1985). 저축소비에 대한 규범적 의식과

-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10P
- 14) 이해임(1986). 저축상품에 대한 주부들의 인지도, 건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 15) 이홍선(1988). 도시가계에서 인지도된 저축의식과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16) 정용선(1984). 가계운용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22(4).
- 17) 홍향숙 · 이기춘(1997). 기혼여성의 재무관리 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53~69.
- 18) Chang, R.Y.(1994). Saving Behavior of U.S. Households in the 1980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45-64.
- 19) Chang, R.Y. & Hanna, S.(1994). Factors Related to Household Saving Consumer Interests Annual, 40, 148-155.
- 20) Feber, R. (1982). "Family Decision Making and Economic Behavior : A Review", Family Economic Behavior : Problems and Prospects, ed. Eleanor B.Sheldon, Philadelphia, PA : J.B. Lippincott, 29-61.
- 21) Hanna, S., Fan, J.X. & Chang, R.Y. (1995). Optimal Life Cycle Saving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1-15.
- 22) Hanna, S. & Chen, D. (1996). Efficient Portfolio for Saving for Colleg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115-122.
- 23) Hefferan, C. (1982).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1(4), 47-55.